

# 제주 방언 ‘모르다’의 부정 표현에 대하여

문 순 덕\*

〈차 례〉

- I. 서 론
- II. ‘모르다’의 의미·통사 기능
- III. ‘모르다’의 담화 기능
- IV. 결 론

## I. 서 론

부정문이라고 하면 대개 부정소 ‘아니’나 ‘못’이 쓰인 문장을 일컫는데 이와 같은 명시적인 부정소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모르다’의 부정 표현<sup>1)</sup>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모르다’는 표면적으로는 단일 부정 어휘이지만 통사적으로 보면 부정소를 내포하고 있다.

‘모르다’는 부정소에 의한 부정은 아니지만, ‘엇다’<sup>2)</sup>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1) 보통 부정소라고 하면 ‘부정의 의미를 지닌 형태소’이며, 말하자면 부정 부사로서 동사에 선·후행한다. 부정 어휘나 부정소처럼 위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며, 하나의 단어로서 서술어의 기능이 있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부정문이란 ‘명시적인 부정소가 쓰인 문장은 물론 부정의 의미를 가진 부정 어휘가 쓰인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모르다’인 부정 어휘를 다루려고 하며 ‘부정문’ 대신에 ‘부정 표현’이란 용어를 쓰고자 한다. 제주 방언에서 부정 어휘로 다룰 수 있는 어휘에는 ‘모르다, 말다, 엇다, 아니다’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모르다’의 여러 기능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 2) 제주 방언에서 ‘엇다’와 ‘웃다’는 이형태이며(읍다, 없다도 쓰임) 중앙어 ‘없다’에 해당한다.

로써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 어휘이다. 긍정 어휘 '알다'가 부정소 '못'과 공기한 단형 부정문은 성립하지 못한다. 이는 '모르다'라는 대체 어휘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임홍빈(1987: 77)에서는 부정문 성립 기준에서 '모르다'와 '엇다'도 "부정 극성을 띤 성분과 공기 관계를 보이는 요소"여서 통사적인 부정문과 함께 부정문으로 다루고 있다. '엇다'와 마찬가지로 '모르다'도 '부정소+긍정 어휘'로 분석해서, '못+알다', '알지 못하다'가 됨을 보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제주 방언에서 긍정 어휘 '알다'와 그에 대응되는 부정 어휘 '모르다'의 의미·통사·담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Ⅱ. '모르다'의 의미·통사 기능

흔히 '모르다·알다·생각하다·기억하다' 등을 인지 동사라 부른다. "인간은 인식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되는데 이러한 인식 활동을 표현하는 동사"가 인지 동사이다(이현희 1994: 465). 인식 활동의 대상은 "구체적인 사물 뿐만 아니라 어떤 사태(사건이나 과정, 상태 등)와 사실, 그리고 명제까지도 포함되는 특징"(우형식 1991: 414)이다. '알다'가 쓰인 문장은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어떤 사태 발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모르다'를 '알다'의 부정 어휘로 대립쌍을 설정하면 이와 같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알다'의 부정어가 '모르다'라 할 수 있는 것은 '알다'는 '정보'를 가질 때이고, '모르다'는 '정보의 부재'일 때이다.

장경희(1984: 18~20)에서는 "'모르다'의 핵심 의미를 '정보를 가지지 않다'로, '알다'의 핵심 의미는 '정보를 가지다', '지식을 가지다', '안면이 있다', '이해하다' 등 문맥적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가 없는' '모르다'의 통사 기능을 논의해 보겠다.

(1) 가. 난 질을 몰라. (나는 길을 몰라.)

나. 난 가의 몰르쿠다.<sup>3)</sup> (나는 그 아이 모르겠습니다.)

3) '몰르쿠다'는 '모르+(으)크+우+다'로 형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으)크-'는 주어가 1인칭 일 때 화자의 의도·의지나 추측을 뜻하는 제주 방언의 선어말어미이며, 중양어 '-겠-'과 문법 기능이 같다. 또한 '-우-'는 제주 방언 상대 존대 선어말어미이며, 선행 형태소가 개음절이면 '-우-'가, 폐음절 형태소이면 '-수-'가(엇수다) 결합된다(정승철 1994; 홍종립 1993; 현평효 1985 참조).

## 제주 방언 '모르다'의 부정 표현에 대하여

다. 는 그 일을 몰른다. (너는 그 일을 모른다.)

(1)에서 '몰르다'는 선행 명사구를 부정하고 있다. 즉 목적어가 부정 대상이 된다. '모르다'와 '알다'의 대립쌍이 성립함을 알아 보기 위해서 '몰르다'를 '알다'로 대체하면 (2)와 같다.

- (2) 가. 난 질을 안다.  
나. 난 가의(를) 안다.  
다. 는 그 일을 안다.

(2)의 부정으로 통사적인 부정문을 쓰지 않는 것은 (1)처럼 대체할 수 있는 부정 어휘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2)에서 '알다'는 인식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정보는 화자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다. (1)에서 '몰르다'와 마찬가지로 '알다'도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 쓰이고 있다.

- (3) 가. 난 질을 {알/모를} 수 있다.  
나. 난 가의를 {알/모를} 수 있다.  
다. 는 그 일을 {알/모를} 수 있다.

(2)에서 '알다'에는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안다는 확신"의 의미가 들어 있는데, (3)에서 '알 수 있다'가 쓰인 문장은 '확신'보다는 '가능성'의 의미가 있다. 즉 대상(목적어)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일 수도 있다. '모르다'·'알다'라는 인지 동사에 '-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결합되었다. 그래서 '-르 수 있는' 가능성·방법·능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모를 수 있다'가 쓰인 문장은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여유가 있다. 여기서 '알다/몰르다'+'-르 수 있다' 사이에는 다양한 정보가 존재한다.

그런데 (2)와 (3)의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니다. '모르다'·'알다'라는 단정, 확신과 '-르 수 있다'에 대한 가능성과 '-르 수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즉 '-르 수 있-'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수많은 점이 놓여 있으며, 점과 점 사이의 간격 만큼 정보의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다음은 (2)를 '부정소+알다'의 형식을 이용한 단형·장형 부정문으로 만들어 보았다.

- \* (4) 가. 난 질을 {아니/못} 안다.  
 나. 난 가의를 {아니/못} 안다.  
 다. 는 그 일을 {아니/못} 안다.
- (5) 가. 난 질을 알지 못하다/ \*아니하다.  
 나. 난 가의를 알지 못하다/ \*아니하다.  
 다. 는 그 일을 알지 못하다/ \*아니하다.

단형 부정문 (4)는 성립하지 않으며, 장형 부정문 (5)는 성립한다. 인지 동사 '알다'가 부정 서술어 '아니하다'와는 공기하지 않고 부정 서술어 '못하다'와는 공기하고 있다. 이것은 '알다'라는 인지 동사의 인식 활동이 새로운 정보를 얻을 경험이 없는 경우 '타의 부정(부정소 '못'의 의미이다.)'의 '못하다'가 쓰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알 수 있는 정보 제공은 타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서 부정 서술어 '못하다'가 선택되었다고 생각한다. (4)에서 '못+알다' 대신에 '모르다'가 자연스럽게 실현되며, (5)에서 '-지 못하다' 대신 '모르다'가 쓰이면 더 자연스럽다. '모르다'를 '알지 못하다'로 대체해도 의미상의 변화가 없으므로 '알다'의 대립쪽으로 '모르다'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모르다'는 '부정소+긍정 어휘'로 재분석('못+알다'로 재분석된다.)할 수 있다. 통사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장형 부정문을 만들어보기는 했지만, 실제 발화시에 제주 방언에서는 '몰르다'가 더 자연스럽게 쓰인다.

그런데 (5)처럼 장형 부정문을 사용할 때는 화자의 조심스런 태도가 반영된다. 이 때에는 '몰르다'라고 단정하는 것보다 알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화자가 시인하기를 거부하거나 청자의 판단을 보류하려는 화자의 심리 상태가 반영된다.

- (6) 는 알지 못하명<sup>9)</sup> 무사 경 험시니<sup>9)</sup>?  
 (너는 알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4) '못하+명'에서 제주 방언 '-명'은 중양어 연결어미. '-면서'에 해당한다.  
 5) '험시니'는 '하+암+시+니'로 분석이 된다. 시제 선어말어미. '-암시-'에서 '-암-'은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상 형태이며, '-시-'는 동사 '시다'(있다)에서 선어말어미로 문법화되었다. 물론 '-암시-'를 미완료 존속상, '-아시-'를 완료 존속상으로 하나의 형태소로 다루기도 한다(문순덕 1999; 홍종립 1993; 현명효 1985 참조).

## 제주 방언 '모르다'의 부정 표현에 대하여

(6)은 연결어미와 통합된 경우 '몰르다'보다(“는 몰르멍 무사 경 험시냐?”) '알지 못하다' 구문이 자연스럽다. 여기서는 청자가 '정보를 가지지 못함'을 당연시하고 있어서 후행절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 '모르다'를 쓸 경우에는 화자는 청자의 '정보 부재'를 단정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다'를 쓸 경우에는 청자의 '정보 부재' 정도가 약하게 들린다. '모르다'와 '알지 못하다'의 의미 차이는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화 상황에 따라, 화자·청자의 감정에 따라 그 정도를 강·약으로 나타낼 수 있다.

### (7) 난 그걸 알지 {아니혀켜/못혀켜}

(7)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으)크'가 쓰여서 화자 자신이 의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거나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뜻한다. 이 때는 부정소 '아니'와 '못'의 의미인 '단순 부정'과 '타의 부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부정 서술어 '아니혀다'가 단순 부정의 의미일 때는 (5)처럼 비문법적인데, (7)처럼 의지 부정의 의미로 쓰일 때는 문법적임을 알 수 있다.

### (8) 난 이 책 몰르지 아니한다. (나는 이 책 모르지 않는다.)

(8)은 이중 부정문인데 '모르다'가 부정 서술어와 공기하는 것으로 봐서 '몰르다'는 부정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 '알다'의 부정 표현으로 '아디 못혀-'와 '몰알-'이 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정소 '아니'에 의한 부정문도 나타난다.

### (9) 가. 오닐날 이 브들 몰아 스흔리로다. (석보상절 13 : 43)

나. 또 일즙 서르 아디 못혀노니. (노걸대언해 上 43)

다. 아디 아니타 혀시며. (월인석보 14 : 71)

라. 어던 사르물 몰라 보아. (석보상절 11 : 33)

(9)에서 보듯이 류광식(1990 : 73)에 의하면 “‘모르-’(不知)와 ‘몰 알-’(不能知)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즉 15세기에는 두 유형이 공존했었는데, 점차 ‘몰+알’이 갖고 있는 능력 부정의 의미 곧 ‘不能’이라는 의미가 약화되어 ‘모르-’가 ‘못+알-’을 대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모르다’에는 ‘못+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타의 부정인 ‘못하다’만이 선택되며 ‘부정소

(못)+긍정 어휘(알-)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세 국어에서 이미 두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중앙어에까지 이어져 왔으며, 제주 방언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모르다'에는 '不知'와 '不能知'의 의미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다'의 부정형으로 장형 부정문 '아디 못-'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세 국어의 통사 특성인 (9가, 다)가 제주 방언과 중앙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10) 가. 난 질을 몰른다.

나. \*난 질을 {아니/못} 몰른다.

다. 난 질을 몰르지 안른다/ \*못른다.

라. 난 질을 안다.

(10)은 '모르다'의 부정문을 만들어 본 것이다. (10가)를 부정하면 (10다)가 되는데, 일상 회화에서는 좀더 짧은 문장인 (10라)가 빈번히 쓰인다. '모르다'의 부정 표현으로는 장형 부정문만 성립한다. (10다)는 이중 부정문인데 (10라)와 같이 긍정의 의미이다. 따라서 '몰리지 아니한다'가 긍정의 '알다'로 대체되므로 '모르다'의 긍정 어휘가 '알다'임을 알 수 있다. (10나)가 비문법적인 것은 '모르다'에 부정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소의 겹침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정소 '아니'는 인지 동사 '모르다' 앞에 올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10다)가 이중 부정문으로 성립하는 것은 화자가 이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모르다'에 이미 不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타의 부정의 부정 서술어 '못한다'와 공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문종결형에서의 통사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가. \*난 그 맛을 이름을 {몰르게/알게, 몰라라/알아라}

나. 는 그 맛을 이름을 {몰른다/안다, 몰르크냐/알아지크냐?}

다. 가의 이름을 들어도 {알지 말게/알지 말라}

(11)에서 '알다'와 '모르다'의 후행 환경을 보면 청유, 명령 등의 서법이 올 수 없고, 평서·의문문으로만 실현됨을 보여 준다. (11가)의 명령·청유형을 (11다)처럼 치환하면 문장이 성립한다. 즉 청유의 '몰르게'를 '알지 말게(자)'로 바꾸고, 명령의 '몰라라'를 '알지 말라'로 바꾸면 문장이 성립할 수도 있

### 제주 방언 '모르다'의 부정 표현에 대하여

다. 이 때에는 '알려고 하지 말-'의 뜻으로 쓰일 때이다. 단순히 인식되는 대상이 아니고, 주어가 의도적으로 알려고 했을 때 발화되는 문장이다. 여기서도 명령·청유문에서는 '말다'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인식 활동과 관계있는 인지 동사이기 때문이다. 이 인지 동사는 [+과정]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어서 '말다'와 공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앞의 보기와는 다른 통사 기능을 알아보겠다.

(12) 가난 올 줄 모르는구나.

(12)에서 '모르다'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부정이라기보다는 주어의 숨겨진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대상에 대한 체념, 원망의 문맥 의미가 들어 있다. 이 때의 '모르다'는 '알다'의 부정어는 아니다.

긍정 어휘 '알다'의 부정을 보면 부정소 개입 유형으로는 장형 부정문만이 성립함을 보았다. 이것은 이에 대응하는 부정 어휘 '모르다'가 '부정소+긍정 어휘'의 복합체임을 증명해 준다.

### Ⅲ. '모르다'의 담화 기능

다음은 '모르다'의 담화론적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13=1) 가. 난 질을 몰라.

나. 난 가의 몰르쿠다.

다. 는 그 일을 몰른다.

(13)에서 '모르다'는 청자가 원하는 '새로운 정보'를 화자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공통적인 전제는 "누군가 무엇을 알고 있다"이다. 여기서 모르는 부정 대상은 초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3가)에서 '모르는' 대상이 '나'이면 "나만 길을 모르고 다른 사람은 알고 있다"는 뜻이며(난 질을 몰라.), '질(길)'에 초점이 놓이면 '길'과 관련된 모든 사태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뜻이다. (난 질을 몰라.) '길' 말고 다른 정보는 알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한 화자는 청자에게 자세히 답변하기 싫어서 모르는 체하거나, 시인하는 것을 거부할 때의 발화일 수도 있다. (13 나)

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안면·성격·직업' 등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차 모르는 부정 대상이 '가의'이면, '가의'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심리 상태까지도 포함된다. 물론 '그 아이'와 관계된 질문 내용에 따라서 정보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선어말어미 '-(으)크'가 있어서 화자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여기서도 화자의 알리고 싶지 않은, 응답하기 싫은 거절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화자의 무관심한 응답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13가, 나)에서 '모르다'에는 '정보의 부재' 외에도 화자의 '거절·거부'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13다)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를 함의하는데, (13가, 나)와는 좀 다르다. 화자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청자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정보의 부재'임이 드러난다. 그래서 청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청자의 정보가 낡고 보잘것 없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그리고 '너는 모른다'라는 화자의 의지와 단정적인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즉 청자의 의사를 거부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모르다'의 부정 대상은 선행 명사구이며, 화자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정말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 일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 '-에 대해서(관해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식 활동이다. 그리고 목적어 '질을, 가의, 그 일' 등에서 목적격 조사 '을/를'은 '-에 대해서'로 대치할 수 있다. 여기서 '몰르다'에는 단순 부정의 의미나, 화자의 발화에 대한 배타성(거부), 체념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의문-응답'에서 '몰르다'와 부정 응답으로 쓰이는 '엇다'의 호응 관계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4) 가. 가의 몰르크냐? (그 아이 모르겠느냐?)

나. 엇다/엇수다, 아녀<sup>6)</sup>/아니우다.

(15) 가. 아덜도 그건 알안 가서? (아들도 그건 알아서 갔느냐?)

나. 엇다/엇수다, 아녀/아니우다(몰르켜).

6) '아녀'는 종결어미 '-어'와 축약되어서 '아니+이어→아녀'가 되었는데, 중앙어에서는 '아냐'로 쓰인다.

실제 발화시에는 '아니여', '아녀', '아니'가 쓰이며 '아니다'는 잘 안 쓰인다. 물론 표준어 교육을 덜 받은 계층이나 노인들에게 해당된다.



## 제주 방언 '모르다'의 부정 표현에 대하여

- (16) 가. 무사게, 웃는 모냐이 아는 모냐인게.  
나. 엇다/엇수다, 아녀/아니우다.

- (17) 가. 우리 아시 잇는 디 알아지크라?  
(우리 동생 잇는 곳을 알 수 있겠느냐?)  
나. 엇다/엇수다, 아녀/아니우다(몰르켜).

(14가)는 “너는 그를 안다”는 긍정적 사실을 전제하고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형식이다. 화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청자에게 확인시키거나 알려 주려는 발화이다. ‘모르겠느냐’는 부정 물음에 대한 부정 응답으로 ‘엇다’와 ‘아니다’가 발화되었다. 이 ‘엇다’도 “모르는 상태 즉 대상에 대한 부재”를 의미하며, 새로운 정보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다. ‘엇다’·‘아니다’는 ‘나는 모르겠다.’는 뜻이다. (15가)는 “아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알았느냐?”라는 뜻이다. 그 부정 응답인 (15나)에서 ‘엇다’·‘아녀’는 “아들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다”는 뜻과, “정말 몰랐다”는 의미로 쓰였다.

(16가)에서 ‘알다’는 숨겨진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한다. (16나)에서 그 정보를 부정하는 ‘엇다’가 쓰이고 있다. 여기서 ‘게’는 제주 방언에 쓰이는 종결보조사이며, ‘모냐인게’에서 ‘-니게’는 종결어미이다. (17가)에서 ‘아는’ 대상은 구체적인 장소이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14~17)에서 부정 응답으로 ‘아니’와 함께 ‘엇다’가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엇다’는 ‘모르는 상태’ 즉 ‘정보의 부재’로 쓰이고 있다. ‘모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순 부정으로 쓰인다. 그러나 ‘엇다’와 ‘아녀’가 공존하는 것으로 봐서 두 어휘의 의미가 달랐을 것이나 지금은 다 같이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아녀’보다 ‘엇다’ 응답일 때는 화자의 의지가 좀더 강하게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14~17)에서 보듯이 중앙어에서는 부정 응답으로 부정소 ‘아니’가 발화되는 자리에 제주 방언에서는 ‘엇다/엇수다’가 발화되고 있어서 부정소 ‘아니’와 ‘엇다’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엇다’는 ‘존재·소유’의 부정 어휘인데, 제주 방언에서는 부정 응답으로도 쓰이고 있다. 부정 응답으로 쓰일 때 ‘엇다’의 의미는, ‘-에 대해서 아느냐’라는 질문일 때 ‘모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엇다’는 ‘알다’의 부정 응답인 ‘모르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의 의식 속에 ‘엇다’가 부정 어휘로 인식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은 부정 응답시 '엇다'나 '아니(아녀)'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수의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젊은층에서는 보편적으로 '아니'를 쓰지만 노인층으로 올라갈수록 '엇다'와 '아녀'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 방언에서 '엇다'와 '아녀'는 단순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제주 방언 토박이 화자들이 두 부정 어휘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은 '엇다'를 '소유·존재'의 부정 외에 '아니다'와 같은 단순 부정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앙어에 비해서 부정 응답으로 두 어휘가 쓰이는 것은 '엇다'가 '아니다'의 의미 영역까지 확대되었음을 뜻한다. 여기서 '엇다'는 화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한 부정이라 할 수 있다.

#### IV. 결 론

이상에서 제주 방언 '모르다'의 부정 표현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여기서는 '모르다'의 의미를 '정보의 부재'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 때 부재의 의미는 부정소 '아니'·'못'이 갖고 있는 단순 부정, 타의 부정의 의미 외에 알고 싶지 않은, 필요성이 없는 단순 부정의 의미이기도 하다. '알다'가 정보의 보유 상태라면 '모르다'는 정보의 부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알다'는 '부정소+긍정 어휘'로 해체 분석이 가능하다.

원래 '엇다'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부정어인데 '모르다'에 대한 부정 응답에도 쓰이는 것은 인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추상적인 대상이라도 '모르다'는 의미를 사용할 수 있어서, '엇다'의 의미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부정 응답 '엇다'는 "'소유·존재'의 부정+추상적인 대상의 부정(인식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제주 방언에서 '모르다'가 쓰인 것은 단순히 부정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모르다'는 응답자가 정말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장된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 담화상에 쓰인 '모르다'는 '알지 못

## 제주 방언 '모르다'의 부정 표현에 대하여

하는' 상황만이 아니라, 화자의 소극적인 대응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모르다'는 배타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 '모른다'는 발화는 액면 그대로의 '모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거나 알고 있는 상황을 일부러 모르는 체하거나, 시인하기를 거부하는 화용적인 면이 있다. 즉 '거부·거절'하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정희(1992), "제주 방언 물음-응답 부정표현 체계에 대하여", 국어학 연구 백년사, 일조각.
- 류광식(1990), 15세기 국어 부정문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문순덕(1997), "제주 방언 부정 응답 구문", 탐라문화 18,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 (1999), "동사구에 쓰이는 '-시'의 문법 기능", 제주학 3, 제주학연구소.
- 우형식(1991), "인지 동사 구문의 유형 분석", 국어의 이해와 인식(김석득 교수 회갑 기념), 한국문화사.
- 이현희(1994), 중세 국어 구문 연구, 신구문화사.
- 임홍빈(1987), "국어 부정문의 통사와 의미", 국어생활 10, 국어연구소.
- 장경희(1984), 현대국어 양태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정승철(1994),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한 길(1977), 한국어 부정어에 대한 연구 : '아니다, 없다, 말다'의 해체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홍종립(1993), 제주 방언의 양태와 상, 한신문화사.
- 현평효(1985), 제주도방언 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